

경기북부 환경현안 및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2024. 8. 28

(주)에코인사이트

정연훈



발표순서

I. 환경거버넌스 목적

II. 경기북부 환경현안

III. 환경거버넌스 사례

IV.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I. 환경거버넌스 목적



1. 환경거버넌스 목적

▶ 목적

●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의 원칙

- 협력의 원칙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참여해서 협력하며 환경 문제 해결

● 환경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환경거버넌스 실현

- 수요자의 요구와 환경영향 문제를 공급자가 가진 과학적 도구를 통해 탐색, 진단, 예측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정책/행정적 방안을 수요자에게 되돌려 주는 순환주기체계 구축

Ⅱ. 경기북부 환경현안



환경현안

1. 방류수 색도
2. 방류수 특정수질유해물질
3. 텐타시설의 백연
4. 악취
5. 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
6. 아스콘 제조시설
7. 고탄연료사용시설(SRF)
8. 열회수 시설 설치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2. 경기북부 환경현안



현안 -1 : 방류수 색도

- 경기북부는 염색, 피혁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들 배출업소에서 방류하는 폐수에서 색도 뿐 만 아니라 냄새까지 문제
- 경기북부의 주요하천 중 색도가 문제가 되며 크게 한강수계로 신천수계, 포천천, 영평천 수계가 있는데 이 하천들이 한탄강에서 만나서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가 최종적으로 한강에 합류
- 최근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수질이 좋지 않아 그 의미가 퇴색
- 원인을 찾다 보니 유기물은 어느정도 안정화 되었는데 색도가 가장 문제, 공공 하수처리시설에는 색도 기준이 없고, 처리시설도 없어, 법과 도민이 바라는 기대와 요구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괴리가 있음

2. 경기북부 환경현안

- 환경행정의 핵심은 배출원 관리로 이러한 맥락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처리 시설개선 및 설치를 하는 것이 큰 틀이지만 경제적인 관점도 간과해서는 안됨
- 섬유염색, 피혁업종이 대부분 영세하고 저물어 가는 사양산업임을 고려
- 아무리 좋은 처리기술을 정부지원으로 보급을 해도 운영관리까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도입할 배출업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 궁극적으로 섬유, 피혁에 편중된 산업을 미래산업 등이 업종 변화를 시도하고 환경은 국가의 공공재산이라는 측면에서 90%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편중된 환경부 예산 정책의 변화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경기북부 환경현안



현안 -2 : 방류수 특정수질유해물질(안티몬 등)

- 몇 해전 안티몬 검출로 경기북부 폐수배출업체가 망연자실하고 있었음
- 원수에서 검출만 되어도 공장폐쇄라는 날벼락 같은 처벌이 현실화되고 있었음
다만 민원과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담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법 적용에 주저하였음
- 처리방법은 있으나 경제성과 효율성 두가지를 만족할 수 없어, 아스콘 업체와 같이 난감한 현실 호소
- 이러한 문제 제기로 지금은 신규오염물질로 지정, 검출되면 허가증에 등재하여 관리

2. 경기북부 환경현안

▶ 현안 -3 : 섬유공장 텐타시설의 백연

- 텐타시설의 주요방지시설은 주로 세정식집진시설에 의존
- 하지만 굴뚝으로 배출되는 가시적인 백연 때문에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백연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유증기로서 VOC가 함께 배출되어 악취유발 물질로 복합적인 대기오염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먼지만 규제하고 있는 실정
- 백연을 제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어 설치하고 있지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배출업소에서는 곤혹을 치르고 있음

[정연훈의 보건환경상식] '백연'의 오해와 진실

✎ 최현호 | Ⓞ 입력 2017.09.14 00:05 | 🗨 댓글 0



오늘도 산업단지 개발의 상징으로 불린 굴뚝에서의 백연(white smoke)은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굴뚝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것은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섬유시설 텐터(tenter) 공정의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scrubber)에서 발생하는 수분과 외부대기의 온도차이 때문에 연기같이 보이는 수증기(백연)다.

특히 겨울철에 외부온도가 낮아지면서 잘 나타나고, 추운 날 입김이 보이는 현상과 같다.

또 수증기가 검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 반대편에서 음영(그림자) 현상에 의한 것으로 구름 중에 먹구름 현상과 같은 것이다. 전술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공장 주변의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섬유공정에서의 텐터 시설은 대부분 크기 8 챔버(Chamber)에서 10 챔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8 챔버의 텐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챔버는 열풍을 가하는 열풍기의 숫자를 의미한다.

텐터 내부의 온도는 원단의 종류에 따라 높고 낮은데, 면과 같은 천연 섬유 원단의 경우 160°C 정도에서 가공되고 있다.

화학섬유 같은 경우는 210°C에서 가공 운영되고 있다. 화학섬유 가공의 경우가 백연이 많이 발생하는 원단으로, 높은 온도의 가공 온도와 원단에 묻어 있는 윤활제의 증발에 따라 다량의 백연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제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경기북부의 산업구조는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며 텐터 시설의 방지시설은 98% 이상 세정식 집진시설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텐터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는 다량의 오일미스트(Oil mist)가 배출되고 배출된 오일미스트는 백연을 형성해 주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며, 악취 민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배출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백연관련 현답과제를 선정해 기존 세정식 집진장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업장 주변 악취 민원 발생 감소를 가져왔다.

또 텐터 시설 배출허용기준 항목 추가 지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세정수 교체주기(농도기준)를 통한 처리효율 향상을 기하려 하고 있다.

경기도 알프스프로젝트 백연저감사업 자금지원을 통한 텐터 시설 최적방지기술 적용으로, 배출가스 근본적 처리와 효율개선에 의한 지역 대기질 개선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2. 경기북부 환경현안



현안 -4 : 악취

- 악취 관련 경기북부의 현안은 양주, 동두천 시 경계 지점의 축산농가, 두 번째로 도 경계 지점인 연천, 철원지역 축산농가 악취 민원 폭증
- 그 외에도 포천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연천 유지 관련 시설 등이 있음
- 특히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여름에 가장 민원이 급증하는 환경 이슈 부각
- 많은 예산 투입과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 해결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

2. 경기북부 환경현안

▶ 현안 -5 : 군 비행장, 사격장의 소음

-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거의 치외법권이었던 것이 이제 표면화되어 오염원 조사, 보상기준 마련 등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즉 항공기 소음, 사격장 소음, 헬기 소음 등에서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하여 이전을 요구하는 등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법 개정이 이루어 졌음
- 다만 보상금액 기준, 대상지역 선정방법 등의 미흡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소음 측정 기준이 개선되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경기북부 환경현안

▶ 현안 -6 : 아스콘제조시설

- 새로운 환경규제가 생기기전까지 아스콘 생산업체는 90년대 이전부터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공단지역 외에 계획관리지역 등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통해 아스콘제조공장의 설립운영이 가능해졌으나 아스콘 공장 인근에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아스콘 공장의 소음과 냄새에 대한 민원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주민 건강 위협
-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짐
- 현재 허용기준으로 70%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며 그 동안 다각적인 처리 기술개발 즉 자연소시설을 도입한 처리기술로 허가를 득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
- 현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 우선하는 행정의 미스매치가 그대로 현장에 반영된 사례

2. 경기북부 환경현안

- 경기도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여부확인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사전에 측정을 위하여 장비설치 등 사전작업에 1시간가량 소요되고 검사를 위해 2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실제 업체 측에서는 가동하다가도 제조 물량이 끝났다며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 손을 놓는 경우 다반사
- 막대한 저감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경기도에 의해 폐쇄 조치되는 등 아스콘의 운영은 사실상 아스팔트 제조의 필요악으로 남게 됨
- 하지만 공장폐쇄명령을 받았던 아스콘 업체가 억울함을 소송하여 최근 (2023.6.14)에 승소(폐쇄명령처분 취소),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경우 계획 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아스콘사업장에 한해 최적방지시설 설치 조건부로 설치허가 갱신 중에 있음
- 따라서 전 과정을 고려한 행정처분을 하여 배출업소의 고충도 해결하고 처리 기술도 개발하여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2. 경기북부 환경현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관련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특례규정 규제기준 지침 설정 건의

[관련법규요지]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에 따른 특례로서 "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건축제한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이를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특례규정

2. 경기북부 환경현안

[최근 관련 행정 및 판결 사례]

- 현재 일부 지자체(전라남도, 정읍시 등)에서는 2005년 1월 15일 신설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2항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사항을 설치허가로 갱신해 주어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이를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특례규정

2. 경기북부 환경현안

현안 -7 : 고품연료사용시설(SRF)

-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하는 시설이라 배출업소와 민원인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급기관에서의 법적인 검토 결과 흠결은 없으나 지자체 시, 군의 검토의견 즉 동의를 받아야 최종승인 허가를 득하게 됨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본 결과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에는 만족을 하나 민원이 우선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방법론을 찾아야 함

2. 경기북부 환경현안

[기 고] 고품연료제품의 득과 실

인천일보 | 입력 2018.03.16 00:05 | 수정 2018.03.16 09:58 | 댓글 0

정연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대기환경팀장

지구상에 석유가 개발되면서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열공급 시설의 연료로 B-C유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연료비 절감을 위해 산업현장에서는 대체연료로 SRF가 등장하게 된다.

SRF(Solid Refuse Fuel)는 일반 고품연료제품을 뜻하는 것으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을 절단과 파쇄 가공 과정을 통해서 고품원료로 재탄생되고 있다. 이러한 고품연료제품은 수송성과 저장성 및 연소 안정성을 향상시켜 석탄열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화한 것이라고 한다.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는 폐지류, 각종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땅콩·호두 등의 견과류 껍질, 팥·코코넛 등의 열대과일 껍질을 제조 원료로 하며, 주로 건조 슬러지로 만들어 이용한다.

고품연료는 유럽에서 SRF(Solid Recovered Fuel)의 이전 용어로 RDF(Refuse Derived Fuel)를 사용하며, 국내에서는 SRF로 통합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일반 SRF와 Bio-SRF로 이원화시킨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SRF 사용은 폐기물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아 물밀듯 넘쳐나는 가연성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SRF(고품원료)가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부터 소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현장에서 전문가(환경기술인) 배치를 통한 후처리 시설(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요구된다. 사실 아직까지도 SRF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가 많지만,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배출업소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효도상품이라고 여겨지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의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아 민원발생이 늘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배출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려되는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와 협업하고 있다. 북부환경관리과는 드론에 의한 SRF 사용 시설 배출업소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오염도 검사횟수를 연간 1회에서 4회 이상으로 강화하며 밀도 있는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팩케이지'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알프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노후화-피로도를 극복하고자 시설개선, 교체 자금지원(matching fund)을 최대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배출업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다.

더불어 환경기술인의 재교육을 통한 현장운영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인의 땀과 노력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을 가져와 SRF 사용 배출업소의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2. 경기북부 환경현안



현안 -8 : 열회수시설 설치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 예정처분 : 영업정지 등
 - 처분대상 : 섬유임가공 업체
 - 사유 : 소각열회수시설 계측설비 미설치(개선명령), 정기 검사 불이행 (영업정지 3개월), 저위발열량 검사 미실시(영업정지 1개월)
-
- 열회수시설은 2017년에 입법 예고되어 2019년에 시행
 - 이 법이 섬유업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 발생

가. 열회수 시설의 허가 용량 문제

열회수시설의 허가 용량은 시간당 200kg 이상이어야 하나 대부분 200kg 미만으로 허가를 득한 상태 - 섬유기계에는 이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답변 즉 200kg미만의 시설은 열회수시설이 아닌 처분시설로 봐야 한다는 뜻

2. 경기북부 환경현안



현안 -8 : 열회수시설 설치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행정관서에서는 처분시설은 2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된다는 주장 - 이러한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을 초래

나. 처분시설의 기준의 부적합성

섬유업계의 특성상 2톤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많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또한 열회수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섬유업계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

- 예를 들어 열회수시설은 1년에 사용일이 275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금리인상, 에너지 비용 및 환경비용증가, 중국 직구 제품의 증가로 인해 염색 주문량이 줄어들어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2. 경기북부 환경현안



현안 -8 : 열회수시설 설치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다. 섬유회사 염색기계의 특수성

섬유회사에서는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30-50대 이상의 기계를 보유
이 모든 기계에 증기 유량계를 설치하려면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가동이
일정치 않아 효율이 75% 이상 나오는 것은 지난

- 이러한 이유로 열회수 시설로서의 적합성을 충족하기 어려움

라. 효율성 기준의 문제

열회수시설로 인정받더라도 효율이 75% 이상 나오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2. 경기북부 환경현안

▶ 현안 -8 : 열회수시설 설치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행정소송의 필요성

1. 권리보호 : 부당한 규제와 행정 조치로 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
2. 법적 명확성 확보 : 법적 분쟁을 통해 관련 법규와 규제의 명확한 해석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법적 안정성 하에 운영 가능
3.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 11조에 따르면 3년 마다 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2. 경기북부 환경현안



현안 -8 : 열회수시설 설치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결론

행정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임

향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을 통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를 진행하고 기존 2톤 미만 열회수시설에 대해 계측기 설치 의무를 철폐 하거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Ⅲ. 환경거버넌스 사례



- 경기북부 섬유염색 가공시설 -
민원제로 실현을 위한 텐타시설 배출가스
개선방안



▶ 텐타시설 백연 문제

● 고부가 가치 섬유산업의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임금이 높아지면서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그간 팽배했음

- 그러나 최근 아웃도어 등 기능성 의류수요의 급팽창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산업성장의 핵심요소로 부상

* 경기도 특화산업과 섬유기반팀 신설(2012. 3월)

* 의류의 부가가치율 : 48%(제조업 32%를 크게 상회, 취업유발효과 제조업의 1.5배)

道內 섬유산업의 환경문제(텐타시설)를 해결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



→ '친환경 신소재 섬유'
세계 첫 개발

(도 섬유소재연구원 발표회, 경기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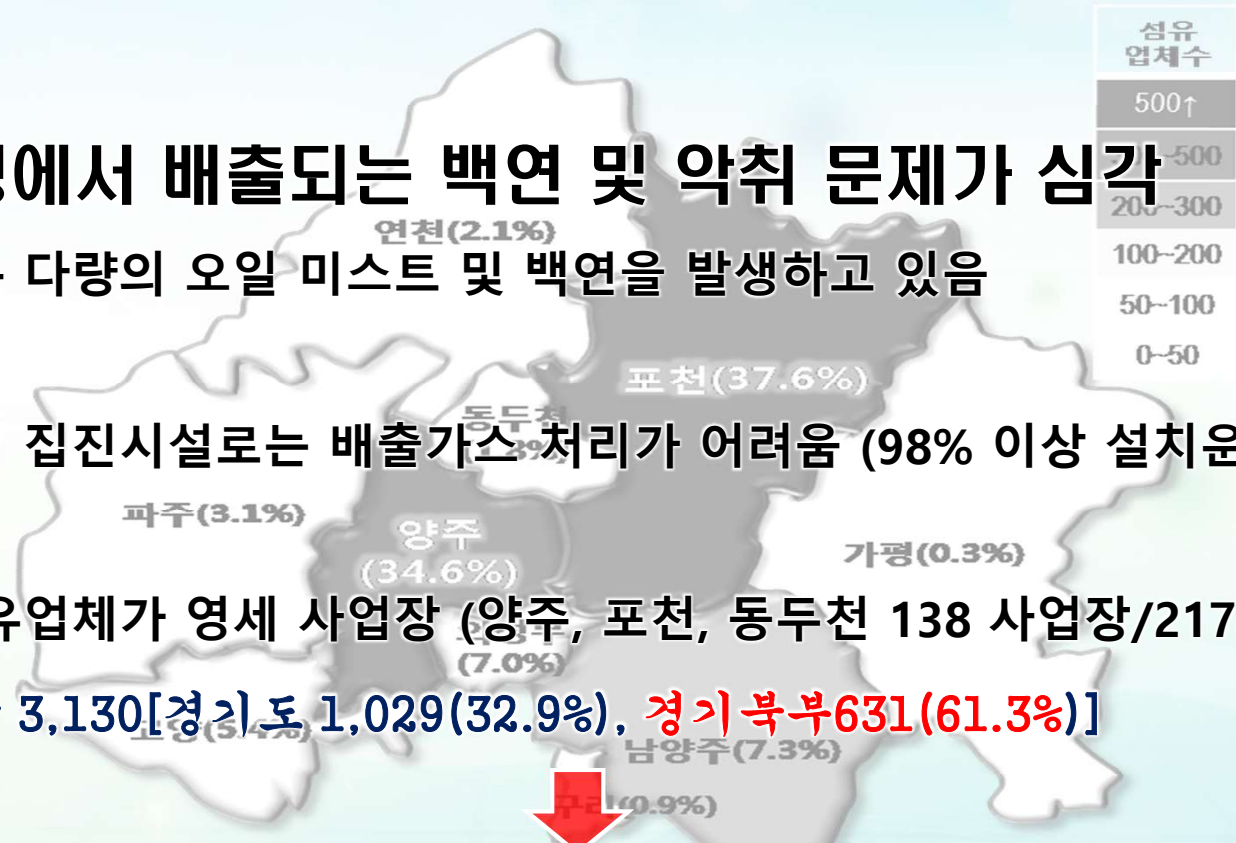
경기 북부 섬유공장 텐타시설 현황

● 텐타공정에서 배출되는 백연 및 악취 문제가 심각

- 텐타공정은 다량의 오일 미스트 및 백연을 발생하고 있음
- 기존 세정식 집진시설로는 배출가스 처리가 어려움 (98% 이상 설치운영)
- 대부분 섬유업체가 영세 사업장 (양주, 포천, 동두천 138 사업장/217 텐타시설)

*전국 3,130[경기도 1,029(32.9%), 경기북부631(61.3%)]

상시 **민원발생(民願發生)**의 주요원인



텐타 집진시설 (예시)



백연 발생 (동영상)



텐타 집진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집진시설 문제점 조사

- 텐타시설 적용 세정식 집진시설의 문제점 조사
- 방지시설 기술적 운영 문제점 파악

● 개선방안 도출

- 전문가 회의를 통한 기술적 자문
- 적용 가능한 최적 방지시설 제시
- 법리 검토를 통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텐타시설 및 세정집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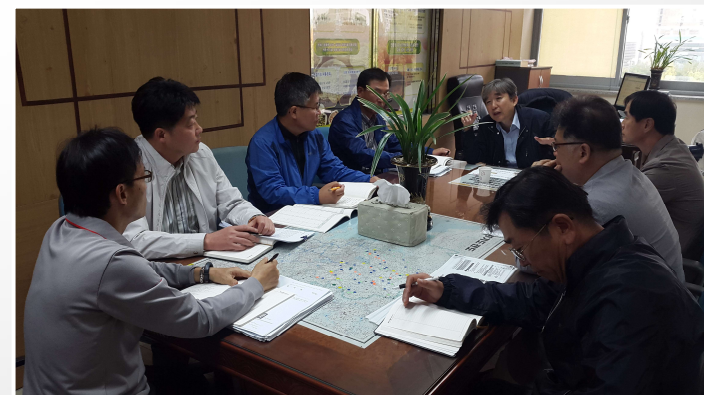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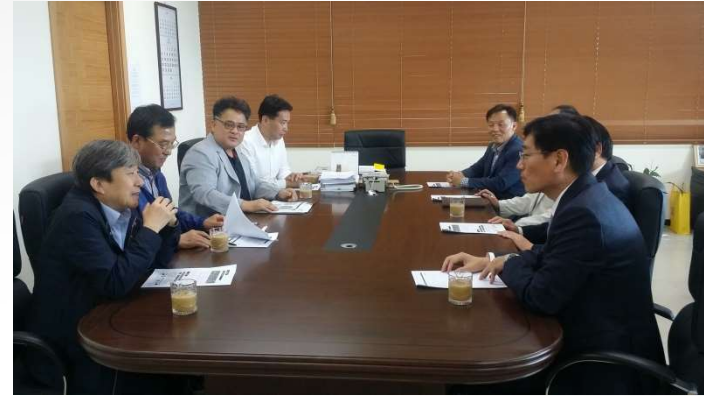
현장 방문 및 실무자 회의



현장 방문 및 실무자 회의



법리검토 및 지원방안 관련회의



개선방안

운영적 측면

- 주기적 청소
- 관리자 교육
- 운영매뉴얼 작성

기술적 측면

- 유수분리기 설치
- 세정수 TANK 개선
- 최적방지시설 적용

정책적 측면

- 배출허용 항목 추가
- 세정수 농도 규제
- **시설 지원사업 확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술지원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경기도청 환경국 2025년 지속사업)

민원제로 실현을 위한 텐타시설 배출가스 개선방안 현답결과

- 기존 세정식집진장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업장 주변 악취 민원 발생 감소
- 텐타시설 배출허용기준 항목 추가 지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세정수 교체주기 [농도기준]를 통한 처리효율 향상
- 자금지원사업을 통한 텐타시설 최적방지기술 적용으로 배출가스 근본적 처리 및 효율개선에 의한 지역 대기질 개선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1기 당 최고 5.6억원 소요)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의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기여

IV. 환경거버넌스 활성화방안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경기북부지역의 환경 현안을 발굴하여 공론화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다양한 의견교류 및 정보를 공유하여 이해의 간극을 좁혀 해결방안을

모색

☞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거버넌스 허브 역할 수행

- 산, 학, 연, 민, 관 환경거버넌스 구심점 역할의 적극적 수행
- 찾아가는 현장 발굴형 현장조사 및 충분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기술 개발 및 제공

☞ 기업의 환경 경쟁력 제고 및 대기질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경기북부에 편중되어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방지 시설의 지원사업 안내 및 설치를 통한 정상가동으로 경쟁력 확보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지역 환경보전 역량 강화

- 환경서비스 활성화 및 전문가 지원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최적 솔루션 제시
- 환경전문기술인 양성을 통한 환경기술 역량 제고

감사합니다